

“한국학, 생활과 밀착한 분야 되도록 힘쓸 것”



“후학양성 써 달라” 전남대에 1000만원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상금 전액 기부

박성수(사진 오른쪽) 광주전남연구원장이 경영자학상 수상 상금 전액을 후학양성에 써달라며 최근 전남대 정병서 총장에게 전달했다.

박 원장은 지난 2월 21일 한국경영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상남 경영자학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 전액을 모교 발전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박 원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대학 후배 및 제자들이 미래를 이끌 동량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면서 “기회 닿는 대로 미래의 자신인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출신인 박 원장은 전남대 상과대학 경영학과 출신으로 모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상남 경영자학상은 한국경영학회와 경영학 발전에 공헌한 경영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무역포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최근 무역협회와 광주·전남지역 120여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선대치과병원, 김남훈 교수 초청 미술 강좌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은 최근 김남훈 교수(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초청, 치과병원 교직원들을 위한 제2회 미술대학과 함께하는 강좌를 개최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한국학 호남진흥원 이종범 초대원장

“우리지역에 산재한 한국학 고문서와 생활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학의 호남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명 10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호남은 언제나 역사의 변곡점마다 시대의 물결기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지역이었다. 자라적으로 변방임에도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라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그만큼 높았다.

최근 한국학호남진흥원 초대원장에 취임한 이종범(65·사진) 전 조선대 사학과 교수는 호남을 토대로 하는 한국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국학진흥원(안동)과 연계해 시대를 담아내는 한국학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동학술회의는 물론 우리생활사와 관련한 자료 수집, 연구 발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9월에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 교육원 3층과 4층에 입주해 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이기에 2년마다 이사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데, 지금은 정중재 광주시 부시장이 맡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과업 가운데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책으로 묶어내고 번역하는

- 고문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원년
- 시민 참여 소통하는 진흥원 만들기
- 시민단체·대학 후진과 강좌 진행



작업은 중요한 과제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해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도 진흥원이 해야 할 몫이다.

“한국학과 호남학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학

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후진들과 함께 전문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대 규장각, 한국 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등과도 연계해 시대대론으로서의 한국학을 생활과 밀착한 분야가 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스실 한국학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데도 호남진흥원 설립은 꽤 늦은 편이다.

수도권과 영남지역에는 오래 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학연구원이 설립돼 나름의 한국학 연구 분야의 중심축을 형성한 상태다.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 행정조직은 갖춰진 상태로, 연구직을 순차적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는 “연구자의 한국학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한국학,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미래로 향하는 한국학이 되도록 초점을 둘 생각이다. 또 고전과 생활 고문서, 생활사 자료 등이 우리 삶과 밀접한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학 교수가 휴가 중 일본 공항에서 응급환자 구조

노영일 조선대병원 교수

환자 가족 병원에 감사 편지

노영일(사진) 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휴가 중 일본 공항에서 응급 환자를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영일 교수는 일본 여행 후 귀국일인 2월 11일 오후 오사카 간사이 공항 근처 식당에서 발작 증상을 일으킨 한국인 환자 김모(50대)씨를 보게 되었다. 건강했던 김씨가 발작을 일으키자 가족들이 경황이 없던 찰나 노영일 교수는 환자 곁에 다가가 주위를 안심 시키며 응급 처치를 해 주고, 환자의 경련 후 의식 상태도 수시로 체크했다.

이후 환자 징후가 호전됐을 무렵 일본 구급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치료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노영일



교수는 환자 가족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노 교수는 기내에서도 환자 옆 좌석에 앉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무안공항에 도착해서도 환자와 함께 출국수속을 마친 노영일 교수는 환자 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환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미담은 환자의 가족이 최근 조선대병원 측에 감사편지를 보내와 알려지게 됐다.

노영일 교수는 “의사로서 위급 환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황했을 가족들이 안심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욱 의사로서 소명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송원초-中 청두시 ‘한중 청소년 겨울문화캠프’

광주 남구청과 중국 쓰촨성 청두(성도)시는 최근 공동으로 광주송원초교에서 ‘2018 한중 청소년 겨울문화캠프’를 진행했다. 〈사진〉

지난달 28일 광주에 도착한 중국 학생 32명과 광주송원초 학생 46명이 참여해 공동 수업이 이뤄졌다. 광주송원초 교사가 진행한 이별 공동수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들이 실력을 겨루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하

모니를 만드는 모습을 선보였다.

광주송원초등학교 신명순 교장은 “같은 문화권에 속한 때문인지 짧은 시간에 친해져 서로 손을 맞잡고 활동하는 모습이 한·중 양국의 밝은 미래를 짐작케 했다”며 “앞으로도 한·중 어린이들의 교류를 지속해 상생의 기초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호평생교육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금호평생교육관(관장 나중훈)은 최근 교육관 대강당에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발대식(사진)을 열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광주지역 퇴직교원,

퇴직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7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광주지역 평생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성인문해교육, 한자지도, 예절교육, 피아노 지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故 정남철씨 선정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고(故) 정남철(1956~1989·사진)씨를 3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선정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택시운전사였던 정씨는 형이 운영하는 세차장 일을 돌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또 정씨는 같이 있었던 처남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끌려가자 형과 함께 시민군에 합류했다.

광주지역 지리에 밝았던 그는 시민군 차량을 운전해 물자를 수송하는 등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을 장



악하자 은실했으나 같은 해 6월27일 창평면에서 검거돼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정씨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9년 7월 사망했다. 정씨는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 3-53묘소에

서 영면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한정호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형순(해양도시가스 사장)·오영희(교사)씨 장남 태균군 신음섭·정경남씨 장녀 고은양=4월 7일(토)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아모리스 역삼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김성두(건설업)·이순덕씨 장남 용태군 최승욱(동양철강 대표)·김선영씨 장녀 화영양=11일(일) 낮 12시10분 라페스타 웨딩홀 4층 디아�파울.

중친회

▲경주씨매 광주전남중친회 재광회원 모임=5일(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카도리센터 뒤 맛집 한겨레 김진기 010-3278-4663.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

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명당, 장법요강등이론과현상 24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신기념도서관 5층 010-3609-811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융합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 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족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현·홍보, 순발맞자서,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모집

▲남부대 풍수지리 무료공개강좌=3일(토)오후 1시30분~6시 남부대 산학관 3층 세미나실 명당, 전원주택, 수택, 영산강의 문의 010-8000-3190

▲광주항교 한문수강생 모집=개강 3월 5일. 매주 월,수,금 강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각각 40명 선착순 모집 062-672-7008.010-4329-020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평생교육지원 모니터단’ 모집=평생교육에 관심이 있고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만30세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30명. 3월 5일(월)까지 방문접수 가능. 문의 062-600-524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

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부음

▲손병숙씨 별세, 손선희(아시아문화원 마케팅팀 과장)씨 부친상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062-973-9164.

謹 상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 | |
|---|---|
| 401호 故최홍식 남(남/90세) 子/子婦: 최선영/김미경, 최거영/송준영 女/婿: 최영미/임영국 孫: 최준환, 준용, 임영진, 영민, 최슬기, 중성, 빛나 末夫人: 임영준 ●발 인: 3월 5일 ●장 지: 일실호국원 | 402호 故박창현 남(남/66세) 子/子婦: 박상용 女/婿: 박민영/김동진, 경민, 미연 孫: 김서연 末夫人: 최현숙 ●발 인: 3월 6일 ●장 지: 영락공원 |
| 101호 故이박선 남(여/84세) 子/子婦: 김장민/오수자, 김석균/이수현 女/婿: 김은실/박정훈 ●발 인: 3월 6일 ●장 지: 영락공원 | |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14 연락처: 227-4385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재길